

지역 소식통



정읍시, 북면 남고학당 초등생 예절학교 운영

정읍시 북면과 남고서원(보림리,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76호)이 올해도 남고학당 예절학교(이하 남고학당)를 운영한다. 올해로 23회째이다.

남고학당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전통 예절을 교육한다.

주요 내용은 사자소학과 서예, 다도, 공예 등이다.

교육이 진행되는 남고서원은 산세가 수려한 칠보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1577년(선조 10년)에 창건된 것으로 일제 이항 선생과 그의 제자 김천일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속중 11년인 1885년 남고서원으로 사액받았다.

면 관계자는 "전통예절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 전통예절과 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북면(☎063-539-7092)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서 부안군의회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MOU 체결

부안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및 사회 소외계층 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일 부안군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부안시는 이번 협약으로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 및 사회 소외계층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의료계가 연대, 본인 치료비를 감면해 주고 불우 가정에는 심의를 거쳐 생필품 지원 등 경제지원 체계를 구축, 대상군민이 의료서비스 필요시 회원 병원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 실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동민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경영대상 수상

관광자원 개발·친환경·친자연 정책 성과 인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천혜의 자연생태의 가치를 자산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20일 서울시 더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면서 국가경제 발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자연생태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이용해 운곡습지 복원,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 등 관광자원화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 등 지속적인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운곡습지 일원에 복원을 위해 습지체합장, 탐방로, 생태숲길과

적인 성장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면서 국가경제 발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자연생태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이용해 운곡습지 복원,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 등 관광자원화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 등 지속적인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운곡습지 일원에 복원을 위해 습지체합장, 탐방로, 생태숲길과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1위

징수목표 대비 118%의 징수율 기록

부안군이 2017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재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연찬회 사례발표에서 장려상 수상,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에서 2회 수상을 하는 등 지방세 징역량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부안군은 2017년 상반기 총 7억 3300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해 징수목표 대비 11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부안군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

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를 추진했으며 징수목표인 6억 2200만원 대비 1억 1100만원이 더 많은 7억 3300만원을 징수했다.

부안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읍·면이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벌이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체납지방세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영지차량을 활용한 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지활동을 중점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1만명 성실납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고충민원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2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의 개별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고창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분야는 행정, 법률, 소비자피해, 지적분쟁 등 14개 분야로 원하는 민원인은 누구든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고창군민을 비롯해 인근 전남 영광군, 장성군 주

/고창=김영식기자

전망대 조성을 완료했고, 운곡습지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해 주변 마을의 향토음식과 지역농산물 판매, 농업체험이 어우러진 관광자원개발과 농어업정책들을 펼쳐가면서 고창민의 특색이 살아있는 정채들에 집중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고창군이 가진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정착시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청정 자연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3년 연속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하면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한 국민의 분향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비보이 세계대회 챔피언 '익스트림크루' 오늘 부안서 'SHOW' 공연 진행

부안군은 오늘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관에서 비보이 세계대회 챔피언인 익스트림크루의 'SHOW'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댄스퀸 전문 제작 예술단체인 (주)엑스크레이티브가 제작한 공연으로 비보이 세계대회인 '복일 Battle of the year'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0개국의 비보이 대표팀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익스트림크루가 출연한다.

2016년 신나는 예술여행 우수 공연팀으로 선정된 익스트림크루의 'SHOW'는 대사 없이 진행되는 너비 댄스퀸 공연으로, 뽕뽕한 열

혈 비보이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에피소드와 비보이, 팝핀, 하우스 등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준다.

역동감 넘치는 신체의 움직임과 강렬한 비트의 조화로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줄 이번 공연은 방학은 맞이한 청소년층에게 큰 만족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문화체육에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부안=이옥수기자

개그작가 김재화씨, 26일 정읍시민 대상 특강



대한민국 1세대 개그작가인 김재화씨가 오는 26일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김씨는 정읍시가 마련한 제2회 시민행복특별강좌의 강사로 나선다.

당일 오후 2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특강에서 김씨는 '유머와 소통을 주제로 삶의 윤희유인 유머, 유머를 통한 소통 방법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씨는 "웃음이야말로 딱딱한 생활에 윤기를 주고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다"며 "이번 강좌가 유머와 웃음을 통해 시름을 덜고 성공과 해소하고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군민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씨는, 대학 재학 중 한국

최초 개그 프로그램인 동양방송(現 JTBC) '실재기 웃어예'로 데뷔했다.

이후 KBS '유머 1번지', MBC '웃으면 복이와요' 등 20여편이 넘는 TV 코미디 프로그램과 MBC 라디오 등 100여편이 넘는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동양방송대, 예원예술대, 명지대 등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국회 유머 아카데미에서도 주임교수를 맡은 바 있다.

현재 유머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기업체와 단체 등에서 400여회가 넘는 강연을 통해 유머로 소통하는 법을 전파하고 있다.

한편 '시민행복 특별강좌'는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 행복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각자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